

금호석유화학, 아스팔트 첨가제 개발

생산 · 시공온도 낮춰 연료소비 30% 절감 ... 골재분리 단점도 개선

금호석유화학(대표 박찬구)은 아스팔트의 생산 · 시공 온도를 낮추어 사용 연료의 양을 30%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첨가제를 개발했다.

금호석유화학이 개발한 첨가제는 아스팔트 포장재료인 아스콘의 생산온도를 160-170도에서 30도 정도 낮추어 중온 아스팔트를 시공할 수 있다.



중온 아스팔트 공법은 벙커-C유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, 황산화물 같은 유해물질 배출을 절감할 수 있고, 겨울철 도로포장 공사가 쉬워지고 응고속도가 빨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11월 경부 · 영동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중온 아스팔트로 포장하면서 성능 실험을 진행했고 포르투갈, 이태리, 일본 등에서도 시험 시공을 진행하고 있다.

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“미국,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포장 공법을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”며 “중온 아스팔트가 물과 접촉하면 골재와 분리되는 단점이 있는데 외국제품과 비교해 20% 이상 단점을 개선했다”고 주장했다.

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아스팔트 첨가제 기술개발 협약을 맺고 1년6개월 만에 공동 개발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1/23>